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의 타당화 연구

윤 선 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학과

분열형 성격장애는 대표적인 성격장애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분열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인에서의 정신병 경향성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있다. Raine과 Benishay(1995)는 간략한 정신병 경향성 탐지의 필요성에 따라서, Raine(1991)이 개발하였던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원본(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에서 문항들을 선별하여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을 타당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두 집단이 참여하였는데, 첫 번째 집단은 대학생 499명으로서, 이들에게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원본을 실시하고,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 22개 문항에 해당하는 원본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취합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대학생 17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과 함께,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 PDQ-4+) 중 분열성 및 분열형 성격장애 하위척도, 사회적응 자기평가 척도(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SASS)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 51명에 대해서는 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2주 간격으로 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76, 재검사 신뢰도는 .75, 문항-총점 상관은 평균 .31이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원저자가 주장한 세 개 요인(인지-지각 결합, 대인관계 결합, 기능 와해)이 적절히 변별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검사와 다른 성격장애 검사와의 상관, 사회적응도와의 상관은 기존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확인적인 임상 면접 전에 대단위 집단에서 빠르고 간략하게 분열형 성격장애를 탐지해 내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분열형 성격장애, 정신병 경향성,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윤선아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학과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 167번지

Tel : 041-529-2668 / Fax : 041-529-2610 / E-mail : k880913@ube.ac.kr

서론

분열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SPD)는 주요 정신병들과 관련되어 있는 심각한 성격장애로서 만성 정신분열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nzenweger & Korfine, 1995; Siever, Kalus & Keefe, 1983).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IV; APA, 1994)에 포함된 분열형 성격장애의 하위 진단기준은 아홉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관계 망상, 마술적 사고, 유별난 지각 경험, 괴이한 사고와 언어, 의심, 부적절하거나 매마른 정동, 괴이한 행동, 친한 사람의 부족, 과도한 사회적 불안 등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분열형 성격장애가 정신분열증과 유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Fanous, Gardner, Walsh & Kendler, 2001; Vollema & Postua, 2002). Tsuang, Stone과 Faraone(1999)은 정상인 통제 집단보다 직계 가족 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는 집단이 분열형 성격 특질을 더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분열형 성격장애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일반인에서의 불특정한 정신병 경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Claridge, McCreery, Mason, Bentall, Boyle, Slade & Popplewell, 1996). 이런 맥락에서 분열형 성격장애는 일반인으로부터 정신장애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이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에 그치지 않고, 양극성 장애나 강박 장애 등 다른 병리 스펙트럼까지 포함하는 것이다(Claridge, 1997; Claridge & Beech, 1995; Rossi & Daneluzzo, 2002).

이와 같이 최근 분열형 성격장애가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중요한 성격장애로서의 입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원 정신분열증 환자 연

구에 가려져 있던,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입원 환자가 아닌 분열형 성격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정신분열증의 소인을 밝혀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Mata, Mataix-Cols & Peralta, 2005; Yung, Phillips, Yuen & McGorry, 2004).

분열형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검사들이 개발되어 왔다. 신체적 및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Physical and Social Anhedonia Scales: Chapman, Chapman & Raulin, 1976), 마술적 사고 척도(Magical Ideation Scale: Eckblad & Chapman, 1983), 지각적 일탈 척도(Perceptual Aberration Scale: Chapman, Chapman & Raulin, 1978), 정신분열증성 척도(Venables, Wilkins, Mitchell, Raine & Bailes, 1990) 등이 있다. 이들 검사들은 일반인들 중 정신병 경향성을 지닌 사람을 탐지해내는데 좋은 도구들이지만, 진단을 위해서 네 개 검사를 다 사용해야 하므로 전체 문항수가 166개로 비교적 길이가 길고(Chmielewski, Fernandes, Yee & Miller, 1995), 당시의 정신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III-R; APA, 1987)의 분열형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포함된 아홉 가지 진단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Raine, 1991).

기존 검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Raine(1991)은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74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당시의 DSM-III-R에 포함된 분열형 성격장애의 하위진단기준 아홉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Raine(1991)이 보고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1, 재검사 신뢰도는 .82였다. 수렴 타당도 면에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는 STA(Claridge & Broks, 1984), 정신분열증 척도

(Schizophrenism: Veneable et al., 1990)와 각각 평균 .62, .81의 상관을 보였고, 변별 타당도 면에서, 무쾌감증(Anhedonia: Veneable et al., 1990), 반사회적 정신병성(Psychoticism: Eysenck, Eysenck & Barrett, 1985)과 각각 평균 .19, .32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검사의 기준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열형 성격장애 검사 총점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성격장애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임상 면접(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II-R Axis II Personality Disorder: SCID-II; Spitzer, Williams & Gibbon, 1987)을 실시하였다. 면접 결과, 총점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 중 55%가 분열형 성격장애로 진단되었다. 반면, 하위 10% 중 이 장애로 진단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홉 가지 특질들은 인지-지각 결합(관계 망상, 마술적 사고, 유별난 지각 경험, 편집증적 사고), 대인관계 결합(사회적 불안, 친한 사람의 부족, 메마른 정동, 편집증적 사고), 기능 와해(괴이한 행동, 괴이한 사고와 언어)의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다(Fossati, Raine, Carretta, Leonardi & Maffei, 2003; Vollema & Hoijtink, 2000).

Raine(1991)의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는 국내에서 김묘은(1995)이 번안하였으며, 문희옥, 양익홍, 이홍표, 김묘은, 함웅(1997)이 한국판의 타당화 연구를 하였다. 김묘은(1995)에 의하면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0, 재검사 신뢰도는 .92였으며, 요인 분석 결과 여섯 개의 하위 요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검사의 총점이 높을수록 특성 불안과 무망감은 높고,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희옥 등, 1997). 이승환, 정영조, 남민, 이강준, 김현, 배성만, 박중규(2005)의 연구에서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에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지각의 장애, 사회적 기능 장애, 기능 와해의 세 개 요인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후에 Raine과 Benishay(1995)은 간략한 정신병 경향성 탐지를 위한 검사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을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지각 결합, 대인관계 결합, 그리고 기능 와해의 세 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초기 문항은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원본에서 선택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인지-지각 결합 하위척도는 관계 망상, 마술적 사고, 유별난 지각 경험, 편집증적 사고 척도 각각의 문항들 중 문항-총점 상관이 가장 높은 두개씩의 문항을 선정하여 총 여덟 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인관계 결합 척도는 사회적 불안, 가까운 친구가 없음, 메마른 정동, 편집증적 사고 척도에서 두 개 문항씩이 선택되어 총 여덟 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능 와해 척도는 괴이한 행동, 괴이한 사고와 언어 척도에서 각각 세 개 문항씩이 선정되어 총 여섯 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세 개 척도를 합하여 총 문항은 22문항이다. 검사의 총점 및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평균 .76이었다. 원본과의 상관은 평균 .91이었고, 재검사 신뢰도는 평균 .90이었다. 또한 이 검사 총점과 구조화된 임상 면접(SCID-II)와의 상관은 .6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후에, 일반인(Aycicegi, Din & Harris, 2005; Mata et al., 2005) 및 입원 환자(Axelrod, Grilo, Sanislow & Mcglashan, 2001),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 환자의 혈연들(Comptom, Chien & Bollini, 2007)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반인 및 환자 집단을 사용한 요인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Mata et al., 2005; Compton et al., 2007), 이 검사의 요인 구조 연구들은 대부분 세 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지지하였다(Axelrod et al., 2001; Compton et al., 2007; Mata et al., 2005). 그러나 음성 분열형과 양성 분열형의 두 개 요인 구조를 주장한 연구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Aycicegi et al., 2005).

이와 같이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은 확인적인 임상 면접 전에 대단위 집단에서 분열형 성격장애를 탐지해 내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하다.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제일 큰 장점 중 하나는 실시의 간편성이다. 피검사자가 답안을 완성하는데 2~5분 정도 걸린다. 또한 정상인 집단에서 분열형 성격장애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연구할 때 유용한 도구이다(Raine & Benishay, 1995). 그러므로 이 검사의 타당화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척도의 신뢰도 및 기존 척도와의 상관을 구하고, 세 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고, 기존 성격장애 검사와의 관련성, 기타 관련 구성 개념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표준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및 측정 절차

본 연구에는 두 개 집단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499명으로서, 남자 233명, 여자 26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33세(표준편차 2.34)였다. 이들에게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원본(74문항)을 실시하였다. 이중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 22개 문항에 해

당하는 원본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취합하였다.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은 세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는데, 인지-지각 결함, 대인관계 결함, 기능 와해 척도로 구성된다. 원본과 단축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검사 총점 및 세 개 하위척도 값 간의 상관을 구했다.

두 번째 집단은 대학생 총 170명으로 남자 76명, 여자 9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5세(표준편차 2.40)였다. 이들에게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과 함께,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 PDQ-4+; Hyler, 1998) 중 분열성 및 분열형 성격장애 하위척도,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SASS)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 총점 및 세 개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간 상관을 구했으며, 세 개 하위척도에 포함되는 문항들에 대해서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 총점 및 세 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두 번째 집단 중 51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 검사 후 2주 후에 단축형 검사를 다시 한 번 측정하였고, 두 검사 간 상관을 구했다. 또한 검사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공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축형 검사와 관련된 검사 간의 상관을 구했다.

측정 도구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개

발을 위해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를 참조하였다.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는 Raine(1991)이 개발하고, 김묘은(1995)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DSM-III-R의 정의에 따라 분열형 성격장애의 모든 특징을 포괄하는 분열형 성격 질문지로서, 관계 망상, 마술적 사고, 비정상적 지각 경험, 괴이한 사고 및 언어, 의심, 적절하지 않거나 제한된 정동, 괴상한 행동, 친한 사람의 부족, 과도한 사회적 불안 등 아홉 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한다.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0, 재검사 신뢰도는 .92였다.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Brief)

한국판 타당화를 위해 사용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은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원본에 기초하여 Raine과 Benishay(1995)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빠른 시간 내에 분열형 성격장애 특성을 가진 응답자를 변별해 내기 위하여 원본에서 적절한 문항들을 선택하여 만들어졌다. 인지-지각 결함, 대인관계 결함, 기능 와해 등 세 개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aine과 Benishay(1995)가 보고한 검사의 총점 및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평균 .76이었다. 원본과의 상관은 평균 .91이었고, 재검사 신뢰도는 평균 .90이었다.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 PDQ-4+) 중 분열성 및 분열형 성격장애 하위척도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성격장애 검

사 중 분열성 및 분열형 성격장애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Hyler(1998)에 의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김동인, 최말래, 조은정(2000)이 번안하였다. 총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분열성 성격장애 일곱 문항과 분열형 성격장애 아홉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전체가 진위형(예/아니오)이며 ‘예’라고 답하는 것이 병적 반응을 의미한다. 채점 방법은 한 문항 당 1점으로 계산한다. 김동인 등(2000)의 연구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척도와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40과 .56이었다.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 (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SASS)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Bosc, Dubini와 Polin(1997)이 개발하고, 김형섭, 김용구, 윤충한, 정한용, 정영기(2000)가 번안하였다. 총 21 문항으로서 내용은 직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가족과 가족외적인 관계, 지적인 흥미, 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자원 및 재정적인 면과 연관된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이루어져있다(김형섭 외, 2000). 각 문항의 평가는 ‘전혀 없다(0점)’으로부터 ‘매우 많다(3점)’까지이다. 김형섭 등(2000)이 보고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79, 재검사 신뢰도는 .65였다.

자료 분석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2.0판을 사용하여 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간 상관, 문항 분석,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행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최대 우도 분석(maximum likelihood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직접 오블리민 회전(oblim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 회전을 실시하였다. 검사의 원저자들(Raine & Benishay, 1995)이 세 가지 하위 요인을 가설적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추출되는 요인 수는 3으로 지정하였다.

결 과

신뢰도

표 1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하

위척도들에 대한 평균, 신뢰도, 및 척도간 상관관이 제시되어 있다. 척도간 상관은 .28~.41이었으며, 내적 합치도 값은 세 개 척도의 경우 .53~.67이며, 총점은 .76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축형의 하위척도와 대응되는 원본의 하위척도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인지-지각 척도는 .85, 대인관계 척도는 .88, 와해 척도는 .90, 그리고 단축형과 원본의 총점간의 상관은 .92로 나타났다.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주 간격으로 51명에게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두 번의 검사 간의 상관은 .75였다(표 2 참조).

표 3에 척도별 문항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표 1.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하위척도 평균, 신뢰도 및 척도간 상관

| | 인지-지각 | 대인관계 | 와해 | 총점 |
|------------|------------|------------|------------|------------|
| 인지-지각 | - | | | |
| 대인관계 | .28* | - | | |
| 와해 | .38* | .41* | - | |
| 총점 | .72* | .78* | .75* | - |
| 문항수 | 8 | 8 | 6 | 22 |
| 척도평균(표준편차) | 2.78(1.68) | 2.69(1.95) | 1.42(1.43) | 6.91(3.84) |
| 내적 합치도 | .53 | .67 | .61 | .76 |

* p<.01

표 2. 2주 간격 재검사 신뢰도(51명)

| | 1차 검사 척도평균(표준편차) | 2차 검사 척도평균(표준편차) | 상관 |
|-------|---------------------|---------------------|-------|
| 인지-지각 | 2.37(1.84) | 1.78(1.60) | .75** |
| 대인관계 | 2.88(2.16) | 2.33(2.03) | .81** |
| 와해 | 1.41(1.47) | .96(1.38) | .61** |
| 총점 | 6.66(4.27) | 5.07(3.63) | .75** |

** p<.05, *: p<.01

표 3. 하위척도별 문항분석 결과

| 하위척도 및 해당 문항 | 원본 해당 척도(문항) | 문항평균 (표준편차) | 문항-총점 상관 |
|---|--------------|-------------|----------|
| 인지-지각 | | | |
| 2.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 혹은 힘이 당신 주변에 있음을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 지각(13) | .39(.48) | .16 |
| 4. 나는 때로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 마술(21) | .40(.49) | .21 |
| 5. 평범한 일이나 물건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관계(28) | .80(.39) | .24 |
| 9.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숨은 위협이나 압력을 종종 느끼니까? | 의심(44) | .17(.37) | .36 |
| 10. 시장에 가면 남이 당신을 쳐다보는 느낌을 받습니까? | 관계(45) | .28(.45) | .22 |
| 12. 미래나 UFO를 본다든지, 점성술이나 육감 같은 것을 경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 마술(47) | .21(.40) | .12 |
| 16. 평소엔 느끼지 못하던 먼 거리 소리 때문에 갑자기 주의집중이 안 됩니까? | 지각(61) | .28(.44) | .33 |
| 17.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지 못하게 경계하곤 합니까? | 의심(65) | .34(.47) | .26 |
| 대인관계 | | | |
| 1. 사람들은 때로 내가 멀리 외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 정동(8) | .27(.44) | .38 |
| 7. 친구와 있을 때조차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느낀다. | 의심(36) | .17(.37) | .31 |
| 11. 나는 정중한 대화에선 매우 초조해진다. | 불안(46) | .44(.49) | .42 |
| 14.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 의심(52) | .45(.49) | .30 |
| 15. 나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뒷전인 경향이 있다. | 친구(57) | .36(.48) | .41 |
| 18. 당신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없다고 느낍니까? | 친구(66) | .07(.24) | .27 |
| 21.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 불안(71) | .39(.48) | .41 |
| 22. 나는 내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 정동(73) | .62(.48) | .24 |
| 외해 | | | |
| 3. 사람들은 가끔 나의 특이한 습관에 대해 말을 한다. | 행동(14) | .41(.49) | .32 |
| 6.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매우 괴상하다고 생각한다. | 행동(32) | .08(.26) | .20 |
| 8. 어떤 사람들은 내가 대화중에 다소 요점 없이 빗나가는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 회화(42) | .31(.46) | .38 |
| 13. 나는 때때로 이상한 방식으로 단어들을 사용한다. | 회화(50) | .27(.44) | .37 |
| 19. 나는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다. | 행동(67) | .28(.44) | .36 |
| 20.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 회화(69) | .21(.41) | .46 |

있다. 22문항의 문항 평균은 .08(6번 와해)~.80(5번 인지-지각)에 이르며 전체 평균값은 .33이다. 문항 총점 상관은 .12(12번 인지-지각)~.46(20번 와해)이며, 전체 평균값은 .31이다.

타당도

구인 타당도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최대 우도 분석(maximum likelihood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직접 오블리민 회전(oblim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 회전을 실시하였다. Raine과 Benishay(1995)이 인지-지각, 대인관계, 와해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가설적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추출되는 요인 수는 3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 추출 방법으로 사용된 최대 우도 분석법은 자료로부터 얻은 상관행렬과 요인모형으로부터 얻은 상관행렬이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요인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χ^2 값을 이용해서 요인수를 검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홍세희, 2005).

표 4에 요인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 요인은 인지-지각 문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아이겐 값은 2.51, 설명 변량은 11.41%였다. 그러나 3 요인(대인관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7번 문항이 1 요인에 포함되었다. 2 요인은 와해 문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고, 아이겐 값 3.45, 설명 변량 15.68%였다. 1 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개 문항(4번)이 적절하지 않게 포함되었다. 3 요인은 대인관계 문항들로서 아이겐 값 2.06, 설명 변량 9.38%였다. 세 개 문항이 예측과 달리 포함되었는데,

표 4. 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 문항번호 | 요인 부하량 | | | Communality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 17 | .94 | .17 | -.22 | .99 |
| 10 | .65 | .26 | -.06 | .44 |
| 7 | .50 | .35 | -.29 | .36 |
| 9 | .49 | .33 | .11 | .29 |
| 2 | .40 | .35 | .19 | .26 |
| 16 | .22 | .21 | .01 | .07 |
| 19 | .39 | .84 | .00 | .73 |
| 6 | .31 | .78 | -.23 | .63 |
| 3 | .18 | .50 | -.45 | .40 |
| 8 | .17 | .47 | -.08 | .23 |
| 13 | .14 | .46 | -.17 | .22 |
| 4 | (.29) | .33 | .18 | .19 |
| 1 | .16 | .45 | -.65 | .57 |
| 15 | .13 | .30 | -.63 | .45 |
| 18 | .16 | .46 | -.54 | .45 |
| 21 | .04 | .21 | -.53 | .30 |
| 20 | -.25 | .23 | -.51 | .39 |
| 11 | -.11 | -.03 | -.48 | .25 |
| 14 | .13 | .09 | -.45 | .23 |
| 22 | .17 | .15 | -.43 | .21 |
| 12 | .02 | .14 | .30 | .13 |
| 5 | (.20) | .13 | .30 | .14 |
| 아이겐 값 | 2.51 | 3.45 | 2.06 | |
| 설명변량(%) | 11.41 | 15.68 | 9.38 | |
| 누적변량(%) | 11.41 | 27.10 | 36.48 | |

20번 문항은 와해 문항에 포함되어야 했고, 12번과 5번 문항은 인지-지각 문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3 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른 구성개념(PDQ-4+, SASS)과의 관련성

| | PDQ-4+ | | SASS | | | | | |
|-------|--------|-------|--------|--------|--------|--------|--------|--------|
| | 분열성 | 분열형 | 직업흥미 | 가족관계 | 사회활동 | 지역참여 | 자기지각 | 총점 |
| 인지-지각 | .06 | .62** | -.06 | -.09 | -.18** | -.03 | -.26** | -.19** |
| 대인관계 | .53** | .58** | -.25** | -.22** | -.55** | -.32** | -.38** | -.50** |
| 와해 | .31** | .63** | -.13* | -.15** | -.18** | -.11* | -.29** | -.26** |
| 총점 | .36** | .70** | -.19** | -.20** | -.40** | -.21** | -.40** | -.42** |

** : p<.05, * : p<.01

공존 타당도

이 검사의 공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DQ-4+ 중 분열성 및 분열형 하위척도와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표 5에 본 검사와 관련 검사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PDQ-4+의 분열성 하위척도와 본 검사의 상관을 보면, 인지-지각 척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대인관계 척도와는 .53의 상관을 보였으며, 와해 척도와는 .31의 상관을 보였다. 분열성의 특징이 주로 사회적 위축인 점을 감안할 때 인지-지각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납득할 만하며, 본 검사 중 가장 사회적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 척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와 달리, PDQ-4+의 분열형 하위척도와는 본 검사의 총점 및 하위척도 모두 고르게 높은 상관을 보여서 검사의 공존 타당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인지-지각 척도는 사회적응의 하위척도들과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적은 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관계 척도는 세 개 하위척도 중 사회적응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와해 척도와 사회적응과의 상관관계는 세 개 하위척도 중 중간에 속한다.

논 의

분열형 성격장애는 중요한 성격장애일 뿐 아니라 만성 정신분열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인에서의 정신병 경향성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있다. 분열형 특질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들 개발되어 왔으나, 특히 Raine(1991)이 개발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는 분열형 성격장애의 하위진단기준 아홉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화되었으며(김묘은, 1995), 전세계적으로 많은 분열형 관련 연구에 사용되어 왔고, 검사의 타당도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후에 Raine과 Benishay(1995)은 간략한 정신병 경향성 탐지의 필요성에 따라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원본에서 문항들을 선별하여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을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확인적인 임상 면접 전에 대단위 집단에서 분열형 성격장애를 탐지해 내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타당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을 타당화하는 것이다. 즉 검사의 신뢰도 및 기

존 척도와와의 상관을 구하고, 세 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고, 기존 성격장애 검사와의 관련성, 기타 관련 구성 개념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기준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의 내적 합치도 값은 세 개 척도의 경우 .53~.67이며, 총점은 .76이었다. 내적 합치도 값이 높은 편은 아니나, 각 하위척도의 문항수가 여덟 개 내지 여섯 개로 적은 점과, 세 개 하위척도의 구성이 한 척도당 세 개 또는 두 개 원본 하위척도가 통합되어 척도 내에서 문항들 간에 이질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축형의 하위척도와 대응되는 원본의 하위척도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인지-지각 척도는 .85, 대인관계 척도는 .88, 외해 척도는 .90, 그리고 단축형과 원본의 총점간의 상관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단축형의 문항이 원본의 1/3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목적으로 검사를 사용함에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사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 요인은 인지-지각 문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2 요인은 외해, 3 요인은 대인관계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 검사의 요인 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세 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지지하였다 (Axelrod et al., 2001; Compton et al., 2007; Mata et al., 2005). 그러나 두 개 요인 구조를 주장한 연구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다 (Aycicegi et al., 2005). 몇 개 문항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원저자가 의도한 세 개 요인이 본 연구에서도 변별됨을 보여주었으며, 세 개 요인 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Axelrod et al., 2001; Compton et al.,

2007; Mata et al., 2005).

이 검사의 공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DQ-4+ 중 분열성 및 분열형 하위척도와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PDQ-4+의 분열성 하위척도와 본 검사의 상관을 보면, 인지-지각 척도는 상관이 없는 반면, 대인관계 척도와는 .53의 상관을 보였으며, 외해 척도와는 .31의 상관을 보였다. DSM-IV에 제시된 분열형 성격장애와 분열성 성격장애의 감별진단에 의하면, 둘 다 “사회적인 고립과 제한된 정동이 특징이지만, 분열형 성격장애는 인지적, 지각적 왜곡과 심한 엉뚱함이나 괴상함에서 구별”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지각 척도는 PDQ-4+ 중 분열성 하위척도와 관련성이 없어서 분열형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보여준 반면, 대인관계 척도는 분열성 하위척도와 관련성을 보여서, DSM-IV에 제시된 감별진단 내용과 잘 부합됨을 보여준다. 또한 Aycicegi 등(2005)의 연구에서, 터키판 분열형 성격장애-단축형 검사와 PDQ-4의 분열성 하위척도간의 상관을 구하였는데,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달리, PDQ-4+의 분열성 하위척도와는 본 검사의 총점 및 하위척도 모두 고르게 높은 상관을 보여서 검사의 공존 타당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인지-지각 척도는 사회적응의 하위척도들과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적은 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관계 척도는 세 개 하위척도 중 사회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기존의 검사와의 관련성이나 다른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와의 관련성은 이 검사의 공존 타당도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검사의 신뢰도, 요인 구조, 그리고 다른 구성 개념과의 관련성 등은 기존 연구들과 일

치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 검사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검사의 타당화를 위하여 임상 표본에서의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Axelrod et al., 2001). 특히 검사 결과와 임상적 면접 간의 관련성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요인 구조에 대한 기존의 논란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Aycicegi et al., 2005; Comptom et al., 2007). 최근 분열형 특질과 정신분열증의 유전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정을 통한 연구 또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Vollema & Postua, 2002).

참고문헌

- 김동인, 최말레, 조은정 (2000). 한국판 성격장애검사(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 PDQ-4+)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9, 525-538.
- 김묘은 (1995). Raine의 분열형 성격장애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섭, 김용구, 윤충한, 정한용, 정영기 (2000). 한국어판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SA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8, 212-227.
- 문희옥, 양익홍, 이흥표, 김묘은, 함웅 (1997). 한국판 분열형 성격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6, 329-342.
- 양익홍, 이흥표 (1997). 분열형 성격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61-171.
- 이승환, 정영조, 남민, 이강준, 김현, 배성만, 박중규 (2005). 분열형 성격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663-675.
- 홍세희 (2005). 연구방법론 I: 요인분석을 이용한 심리검사의 타당화. 200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II, 1-3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SM-III-R: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revised. Washington, DC: The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The Association.
- Axelrod, S. R., Grilo, C. M., Sanislow, C., & McGlashan, T. H. (2001).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factor structure and convergent validity in inpatient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 168-179.
- Aycicegi, A., Dinn, W. M., & Harris, C. L. (2005). Validation of Turkish and English versions of the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 34 - 43.
- Bosc, M., Dubini, A., & Polin, V.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functioning scale, the 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7 (suppl. 1), 57-70.
- Chapman, L. J., Chapman, J. P., & Raulin, M. L. (1976). Scales for physical and social anhedo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74-382.

- Chapman, L. J., Chapman, J. P., & Raulin, M. L. (1978). Body-image aberration in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399-407.
- Chmielewski, P. M., Fernandes, L. O., Yee, C. M., & Miller, G. A. (1995). Ethnicity and gender in scales of psychosis proneness and mood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64-470.
- Claridge, G. (1997). Theoretical background and issues. In: Claridge, G. (Ed.), *Schizotypy - Implication for Illness and Health*. Oxford Univ. Press, Oxford, NY, pp.3-17.
- Claridge, G., & Beech, T. (1995). Fully and quasi-dimensional constructions of schizotypy. In: Raine, A., Lencz, T., & Mednick, S. A. (Eds.), *Schizotypal Personality*.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NY, pp. 192-216.
- Claridge, G. & Broks, P. (1984). Schizotypy and hemisphere function: I.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the measurement of schizotyp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633-648.
- Claridge, G., McCreery, C., Mason, O., Bentall, R., Boyle, G., Slade, P., & Popplewell, D. (1996). The factor structure of 'schizotypal traits: a large replication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103-115.
- Comptom, M. T., Chien, V. H., & Bollini, A. M. (200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rief Version of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relative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spectrum disorders and non-psychiatric controls. *Schizophrenia Research, 91*, 122-131.
- Eckblad, M. & Chapman, L. J. (1983). Magical ideation as an indicator of schizoty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215-225.
- Eysenck, S. B. G., Eysenck, H. J., & Barrett, P. A. (1985). A revised version of the Psychoticism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21-29.
- Fanous, A., Gardner, C., Walsh, D., & Kendler, K. S. (2001).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s of schizophrenia and schizotypal symptoms in nonpsychotic relativ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8*, 669 - 673.
- Fossati, A., Raine, A., Carretta, I., Leonardi, B., & Maffei, C. (2003). The three-factor model of schizotypal personality: invariance across age and gen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007-1019.
- Hyler, S. E. (1998).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IV. New York.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 Lenzenweger, M. F., & Korfine, L. (1995). Tracking the taxon: on the latent structure and base rate of schizotypy. In: Raine, A., Lencz, T., & Mednick, S. A. (Eds.), *Schizotypal Personality*.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NY, pp.135-167.
- Mata, I., Mataix-Cols, D., & Peralta, V. (2005).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factor structure and influence of sex and age in a nonclinical pop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183 - 1192.
- Raine, A. (1991). The SPQ: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schizotypal personality based on DSM-III-R criteria. *Schizotypal Bulletin, 17*,

- 555-564.
- Raine, A., & Benishay, D. (1995). The SPQ-B: a brief screening instrument for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9*, 346-355.
- Rossi, A., & Daneluzzo, E. (2002). Schizotypal dimensions in normals and schizophrenic patients: a comparison with other clinical samples. *Schizophrenia Research, 54*, 67-75.
- Siever, L. J., Kalus, O. F., & Keefe, R. S. (1993). The boundaries of schizophrenia.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6*, 217-244.
- Spitzer, R. L., Williams, J. B. W., & Gibbon, M. (1987).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SCID-II*. New York: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 Tsuang, M. T., Stone, W. S., & Faraone, S. V. (1999). The Genetics of Schizophrenia. *Current Psychiatry Reports, 1*, 20-24.
- Venables, P. H., Wilkins, S., Mitchell, D. A., Raine, A., & Bailes, K. (1990). A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schizotyp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481-495.
- Vollema, M. G., & Postma, B. (2002). Neurocognitive correlates of schizotypy in first degree relatives of schizophrenia patients. *Schizophrenia Bulletin, 28*, 367 - 377.
- Vollema, M., & Hoijtink, H. (2000). The multidimensionality of self-report schizotypy in a psychiztric population: an analysis using multidimensional Rasch models. *Schizophrenia Bulletin, 26*, 565-575.
- Yung, A. R., Phillips, L. J., Yuen, H. P., & McGorry, P. D. (2004). Risk factors for psychosis in an ultra high-risk group: psychopathology and clinical features, *Schizophrenia Research, 67*, 131-142.
- 원고접수일 : 2009. 10.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 22.
게재결정일 : 2010. 2. 21.

Validity Study of Korean Version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

Seon-Ah Yoo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Dept. of Brain Education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is not only one of the important personality disorders but also closely related to chronic schizophrenia. Further, its role has been extended to psychosis proneness in normal people. Raine (1991) previously developed the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which includes 9 sub-criteria of SPD. Subsequently, Raine and Benishay (1995) developed the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 for the purpose of rapidly detecting psychosis proneness. The items on the SPQ-B were selected from the original SPQ.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andardize the SPQ-B, Korean version. Two sample group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First included 499 college students who had completed the original SPQ. The second included 170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the SPQ-B,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4+ (PDQ-4+), and Social Adaptation Self-evaluation Scale (SASS). Following this, a correlation between the SPQ-B and other scales was calculated. Among the second sample, 51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SPQ-B twice to examine test-retest reliability. As a result, the reliability of the SPQ-B was 0.76, test-retest reliability was 0.75, and the mean of the item-total correlation was 0.31. Further,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the three factors which the original authors insisted had been properly discrimin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Q-B and other scales also showed result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PQ-B are appropriate.

Key words :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psychosis proneness,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ity